고유 생물자원 국외유출 방지 강화

환경부, 곤충 · 양서 · 파충류 등 165종 추가 359종 지정 · 고시

환경부는 2000년 4월 지정된 어류 및 식물에 이어 곤충, 양서 · 파충류 등 165종을 추가한 359종을 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 · 고시했다.

고시된 생물자원은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류를 포함하는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종들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로 끌어 들여 파충류 7종, 양서류 4종, 어류 44종, 곤충류 54종, 식물 250종 등 359종을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선정기준은 "이미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을 제외한 국내서식 동식물(외래동식물 제외) 가운데 상업, 의학, 학술, 전시 및 기타의 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야생상태에서 포획 · 채취되어 국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주로 한국에만 서식하거나 서식환경 파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관상용, 약용, 학술용 등으로 가치가 높은 종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했다.

〈그림 1〉 장지뱀

분포: 한국
특징: 몸길이 15-20cm, 몸의 등면은 적색을 띤 회갈색, 옆면은 짙은 적갈색, 배면은 적색을 띤 백색. 비늘줄은 6줄이 규칙적 배열
선정사유: 서식밀도가 낮고 서식환경 변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종

고시된 종은 상업적인 수출목적 외에도 학술적 목적이나 개인의 관상목적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인받지 아니하고서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체 뿐만 아니라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발도상국과 유전자기술 보유국인 선진국간에 생물자원 사용의 이익배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한국도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2〉 꼬리치레도롱뇽

분포: 한국, 중국, 러시아
특징: 몸길이 17-19cm, 몸의 등면은 황갈색, 노란색의 점무늬가 조밀, 배면은 옅은색에 점무늬없음, 눈이 크고 돌출
선정사유: 강원내륙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감소추세종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 목록◇

1. 파충류(신규 7종) - 도마뱀, 미끈도마뱀, 장지뱀, 표범장지뱀, 실뱀, 대륙유혈목이, 비바리뱀
2. 양서류(신규 4종) - 제주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3. 어류(신규 33종, 기존 11종) - 줄납자루, 칼납자루, 가시납지리, 중고기, 참중고기, 임실납자루, 참몰개, 몰개, 긴몰개, 왜매치, 돌마자, 여울마자, 됭경모치, 버들가지, 가는돌고기, 큰볏말뚝망둥어, 수수미꾸리, 새코미꾸리, 얼룩새코미꾸리, 참종개,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 미유기, 퉁가리, 자가사리, 섬진강자가사리, 눈동자개, 잔가시고기, 꺽지, 동사리, 얼룩동사리, 강주걱양태 (이상 신규지정) 각시붕어, 쉬리, 점몰개, 어름치, 꾸구리, 돌상어, 배가사리, 금강모치, 열목어, 말뚝망둥어, 짱뚱어 (이상 기존고시)
4. 곤충류(신규 54종) - 가는무늬하루살이, 강하루살이, 금빛하루살이, 가람하루살이, 작은실잠자리, 좀청실잠자리, 청실잠자리, 큰청실잠자리, 민날개강도래, 한국민날개강도래, 총채민강도래, 뭉퉁강도래, 한국큰그물강도래, 한국강도래, 두눈강도래, 비룡귀뚜라미붙이, 고수귀뚜라미붙이, 동대귀뚜라미붙이, 비카리아집게벌레,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원표애보라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 보라금풍뎅이, 긴다리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왕소똥구리, 극동붙이금풍뎅이, 참나무하늘소, 호랑하늘소, 검정나무벌, 흰줄꼬마꽃벌, 규산애꽃벌, 둥근허리애꽃벌, 미카도애꽃벌, 중국애꽃벌, 털애꽃벌, 왕가위벌, 청줄벌,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괴불왕애기잎말이나방, 대추애기잎말이나방, 숯검은애기잎말이나방, 왕무늬애기잎말이나방, 개오동명나방, 네점노랑물명나방, 흰날개큰집명나방, 흰물결물명나방, 노랑띠들명나방, 유리산누에나방, 참나무산누에나방, 왕오색나비, 유리창나비, 홍점알락나비
5. 식물(신규 67종, 기존 183종) - 긴다람쥐꼬리, 제주고사리삼, 지리산고사리, 주저리고사리, 털왕버들, 떡버들, 검팽나무, 털긴잎모시풀, 제주긴잎모시풀, 제주모시풀, 지리산개별꽃, 변산바람꽃, 할미밀망, 금꿩

의다리, 매자나무, 섬현호색, 갈퀴현호색, 참장대나물, 섬장대, 통영미나리냉이, 흰털괭이눈, 제주괭이눈, 꼬리말발도리, 바늘까치밥나무, 지리터리풀, 섬벚나무, 떡조팝나무, 정선황기, 아자비과즐, 노랑갈퀴, 목포대극, 긴잎회양목, 둥근잎참빗살나무, 버들회나무, 연밥피나무, 서울제비꽃, 섬제비꽃, 왕제비꽃, 섬바디, 정금나무, 섬쥐똥나무, 둥근잎섬쥐똥나무, 섬개회나무, 참배암차즈기, 광능골무꽃, 깔끔좁쌀풀, 오동나무, 애기송이풀, 봉래꼬리풀, 큰구와꼬리풀, 짧은꼬리풀, 갈퀴아재비, 참갈퀴덩굴, 돌마타리, 애기소경불알, 실제비쑥, 섬제비쑥, 정영엉겅퀴, 고려엉겅퀴, 사창분취, 솜분취, 가야산은분취, 섬포아풀, 지리대사초, 광릉털중나리, 백양꽃, 섬새우난초 (이상 신규지정) 줄석송, 나도고사리삼, 난장이이끼, 물고사리, 새깃아재비, 설악눈주목, 구상나무, 푸른구상, 검은구상, 붉은구상, 눈잣나무, 솔송나무, 눈향나무, 해변노간주, 눈측백, 제주산버들, 개수양버들, 섬버들, 소귀나무, 좀고채목, 왕개서어나무, 너도밤나무, 노란팽나무, 큰잎느릅나무, 제주큰물통이, 꼬리겨우살이, 쥐방울덩굴, 등칡, 개족도리, 섬자리공, 참개별꽃, 한라장구채, 끈끈이장구채, 가시연꽃, 지리바꽃, 백부자, 한라돌쩌귀, 홀아비바람꽃, 바람꽃, 누른종덩굴, 너도바람꽃, 새끼노루귀, 섬노루귀, 만주바람꽃, 모데미풀, 백작약, 섬매발톱나무, 매미꽃, 참고추냉이, 끈끈이주걱, 낙지다리, 속리기린초, 도깨비부채, 톱바위취, 한라개승마, 이노리나무, 가침박달, 흑산가시, 흰인가목, 붉은인가목, 맥도딸기, 거제딸기, 가시복분자, 섬산딸기, 나비국수나무, 왕자귀나무, 한라황기, 늦싸리, 삼색싸리, 제주달구지풀, 참이질풀, 두메대극, 시로미, 우산고로쇠, 섬단풍나무, 모감주나무, 청사조, 먹넌출, 털갈매나무, 좀갈매나무, 담팔수, 섬피나무, 개염주나무,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선제비꽃, 백서향, 산닥나무, 지리산오갈피, 섬오갈피, 털오갈피, 서울오갈피, 황칠나무, 땃두릅나무, 등대시호, 갯방풍, 매화오리, 구상난풀, 수정난풀, 만병초, 참꽃나무겨우살이, 한라산참꽃나무, 흰참꽃나무, 들쭉나무, 금강봄맞이, 참좁쌀풀, 설앵초, 둥근미선, 상아미선, 분홍미선, 푸른미선, 만리화, 산개나리, 꽃개회나무, 대성쓴풀, 비로용담, 닻꽃, 조름나물, 좀어리연꽃, 좁은잎덩굴용담, 덩굴용담, 자난초, 미치광이풀, 만주송이풀, 구름송이풀, 토현삼, 야고, 오리나무더부살이, 개종용, 초종용, 땅귀개, 통발, 이삭귀개, 섬댕강나무, 줄댕강나무, 흰등괴불, 말오줌나무, 금마타리, 도라지모시대, 금강초롱꽃, 구름떡쑥, 어리병풍, 키큰산국, 울릉국화, 바늘엉겅퀴, 한라솜다리, 산솜다리, 갯취, 홍도서덜취, 분취, 국화방망이, 좀민들레, 흑삼릉, 자라풀, 장억새, 금억새, 모새달, 대암사초, 작은황새풀, 검은도루박이, 두루미천남성, 섬남성, 여우꼬리풀, 진부애기나리, 땅나리, 날개하늘나리, 말나리, 섬말나리, 큰솔나리, 나도개감채, 큰두루미꽃, 층층둥굴레, 한라돌창포, 연령초, 노랑붓꽃, 난장이붓꽃, 콩짜개난, 여름새우난, 약난초, 두잎약난초, 개불알꽃, 무엽란, 비자란 (이상 기존고시)

<Chemical Daily News 2002/01/10>